

인공지능 붐에 올라탄 중국...수출 두달 연속 고공행진

수출 19.4% ↑·수입 27.4% ↑...“중동발 위기도 상쇄” 대미 수출도 35% 큰 폭 상승...무역 불균형 문제 대두

인공지능(AI) 붐에 올라탄 중국의 수출이 두 달 연속 고공행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자동차, 기타 첨단 제품들에 대한 강한 수요는 중동발 에너지 가격 충격까지 상쇄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중국이 지난 5월 수출액이 3767억8000만달러(약 572조원)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9.4% 급증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통신 전망치(15.0%)와 블룸버그 전망치(15.0%)를 모두 웃도는 것이다.

중국 수출은 중동 전쟁 위기 속 지난 3월(2.5%) 증가세가 둔화했으나 지난 4월(14.1%)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며 증가 폭을 키웠다.

중국의 지난 5월 수입액도 2713억5000만달러(약 412조원)로 27.4% 증가해 로이터(25.0%)와 블룸버그 전망치(26.0%)를 웃돌았다.

이로써 지난달 중국의 무역 흑자액은 1054억3000만달러(약 160조원)를 기록했으며 1~5월 누계 무역 흑자액은 4517억달러(약 685조원)로 집계됐다.

수년째 부등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을 겪어온 중국은 수출 부문에서만만큼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전세계적인 AI 열풍으로 인해 더욱 탄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관련 수요가 이끄는 AI 붐은 제조업 강국인 중국에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싱가포르 선임전략가는 로이터에 “메모리 가격이 전월 대비 20% 오르는 등 반도체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수출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달 집적회로 수출 증가율도 11%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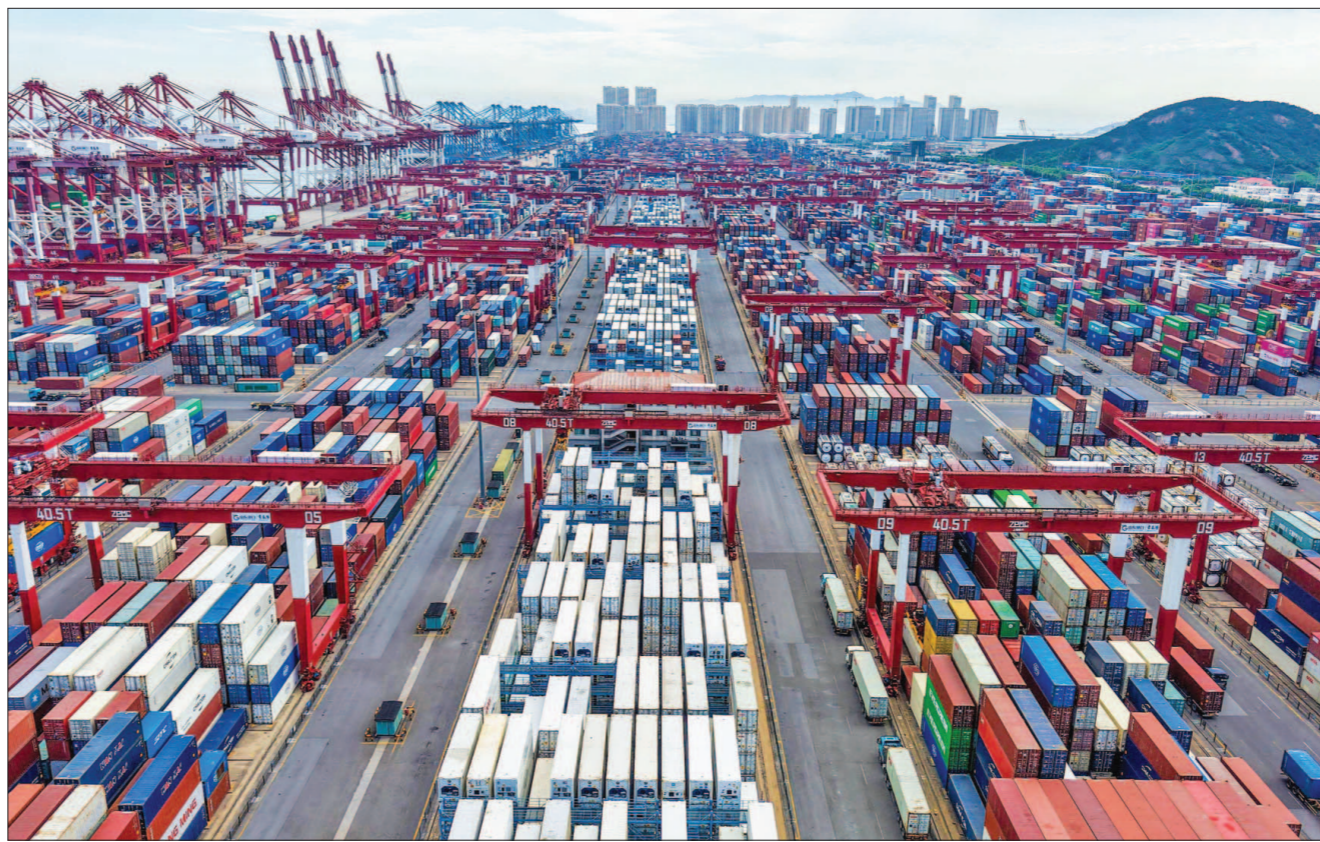
그는 이어 “전망해보자면 AI 이야기는 끝나려면 멀었다”며 “반도체가 중국의 무역 지형을 다시 쓰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무역 흑자 문제를 다시 대두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지난달 중국의 대미 수출은 390억달러(약 59조원)로 집계됐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해 같은 달(288억달러·약 43조원)과 비교해 35.4% 급증한 것이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운용 수석이코노미스트는 AFP에 “중국의 강한 수출 증



중국 산둥성 칭다오항.

연합뉴스

가 국제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여준다”면서도 “유럽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긴장이 잠재적으로 고조될 위험이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대(對)중국 무역 불균형과 관련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 또한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조차 중국산 저가 상품의 공급 과잉이 전세계 제조업체들을 위협하는 이른바 ‘차이 나쇼크 2.0’에 대해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이 국내 소비와 시장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본격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중국이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통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OECD는 중국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상승 가운데 거의 60%가 보조금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지난달 대러시아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29.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수입은 26.4% 증가해 4월(34.1%)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베이징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을 성대하게 맞이했지만, 양측은 러시아가 중국에 판매하는 천연가스 물량을 두 배 이상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거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미국인 25%만 ‘미국 최고’ 민주주의 중요성 인식 약화

미국인 4명 중 1명만 미국이 전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가 미국 성인 2500여명을 조사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5%만 미국이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다고 답했다.

2017년의 33%보다 줄어 들었지만 2024년의 21%보다는 조금 늘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만큼 뛰어나거나 미국보다 나은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률의 변화가 좀 더 컸다.

응답자 44%가 ‘미국이 뛰어난 여러 나라 중 하나’라고 답했다. 2024년의 51%보다 줄어 들었다. 미국보다 나은 나라들이 있다는 응답자는 2024년 26%에서 이번엔 30%로 늘었다. 2016년에는 19%였다.

미국의 위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젊은 층에서 더 컸다.

30세 미만 응답자 중 미국보다 나은 나라가 있는지는 질문에 44%가 그렇다고 답했다. 60세 이상 응답자 중에서는 22%에 불과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미국의 정체성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라고 답한 비율은 66%였다. 2021년의 80%에서 꽤 감소한 것이다.

여론조사는 4월 16~20일 미국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2.6%p다.

연합뉴스

해피니스CC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

2026.6.29(월)~2026.8.3(월)
해피니스CC (전남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p>대회일정 예선 : 2026.6.29~2026.7.27(매주 월요일) 본선 : 2026.8.3(월) 오전 7시 티업</p> <p>경기방식 신페리오 방식 대중제코스(하트, 히든, 힐링) 18홀 샷전 - 남성(화이트티), 여성(레이디티)</p> <p>참가대상 만 20세 이상 남·여 순수 아마추어 골퍼</p> <p>참가접수 해피니스CC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p> <p>시 상 홀인원상(매회 최대 1억원, 복수 발생 시 비용 보장 및 시상금 1/N 지급) 본선-신페리오 우승(1명), 메달리스트(1명) 외 10명 시상 / 행운권 추첨(20명, 해피니스상품권 10만원)</p> <p>문의 예약실 061)330-5001~4 경기팀 061)330-5021~2</p>	<p>참가비 예선 : 30,000원 / 본선 : 50,000원 (중식+홀인원 보험료 포함)/ 입금 확인 시 참가 확정</p> <p>입장료 회원 : 55,000원(카트비, 기본요금 별도) 비회원 : 115,000원(카트비, 기본요금 별도) 대회 7일 전 취소 가능하며 이후 취소는 참가비 전액 반환 불가</p> <p>납부방법 접수 후 참가비 입금 - 참가비계좌(광주은행 001-127-012075) 예금주: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입장료는 현장 결제</p>
--	--

참가신청QR

*위 내용은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경우로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피니스CC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